



보도	2026.6.29.(월) 15:00	배포	2026.6.29.(월)
담당부서	IT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팀 장 이우람 (02-3145-7425)
		담당자	수 석 김래환 (02-3145-7426)

금융감독원, 전자금융사고 대응 역량 및 IT복원력 강화를 위한 「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」 개최

I 회의 개요

- 최근 전산장애와 침해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공격 고도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사고대응 역량 및 IT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
 - 이에, 금융감독원은 장애·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'26.6.29.(월)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91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「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」 를 개최
-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현장점검·상시감시 결과와 하반기 중점 점검방향을 공유하고, 금융권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및 서비스 연속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
 - 참석자들은 IT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 금융사고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, 사고 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

< 금융IT 리스크 대응 회의 개요 >

- ☑ 일 시 : '26. 6. 29.(월) 15:00 ~ 16:00(비대면 회의)
- ☑ 대 상 : 491개사*(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전자금융업무 수행 회사 등)
* 은행, 보험, 금융투자, 저축은행, 여신금융, 신용정보, 상호금융, 전자금융업자 등

Ⅱ 회의 주요 내용

1. 상반기 현장점검 및 IT상시감시 결과 공유

- IT 기본통제 이행실태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 및 IT상시감시를 실시한 결과, 프로그램 변경관리 및 성능관리 등 기본적인 IT 통제가 미흡한 사례를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

< 전자금융사고 예방 유의사항 >

① IT기본통제 준수

- 운영체제 및 전산장비의 취약점 발생시 신속히 보정작업(patch)을 실시하고, 중요 전산자료의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
- 전산장비 등에 대한 침해시도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, 백업·소산 데이터의 무결성 및 가용성 확보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
- 프로그램 변경시 사전 영향도 분석 등 단계별 통제를 강화하고, 테스트 전용 인프라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검증을 실시

② 보안취약점 분석·평가 실효성 제고

- 보안취약점 분석·평가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, 취약점 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
- 식별된 취약점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개선하고, 과도한 위험수용을 지양하여 보안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

③ 전원설비 안전성 강화

- 전산센터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(UPS), 비상발전기, 화재예방 설비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
- 내구연수 경과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전지는 즉시 교체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적정성을 점검

④ 무선망 악용 비인가 접근 예방 강화

※ 초소형 무선 스파이칩이 금융회사의 서버·IT장비에 무단 삽입·은닉되어 무선 주파수(RF) 통신을 통한 내부시스템 침투 및 데이터 탈취, 서비스 중단 등을 유발하는 보안 위협

- 무선통신망을 악용하여 금융사 내부시스템에 침투하는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장비 도입·반입 시 무선백도어 설치 여부 확인 등 통제 강화
- 비인가 무선통신망(무선백도어) 운영 여부를 주기적 점검하고, 서버, 정보처리시스템, 단말기 등에 대한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강화

⑤ 전자금융사고 대응 및 보고절차 준수

-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,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전환훈련 계획을 수립·운영
- 전산장애, 침해사고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보고지연 또는 누락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고절차를 철저히 준수

2. 하반기 점검방향 등 안내

- 최근 전자금융사고*가 IT기본통제 미준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IT기본통제 이행실태를 중점점검하고,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전원설비 운영실태 점검도 병행 실시

*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주요 원인

- ① 프로그램 변경시 영향도 분석이 미흡하여 일부 로직을 누락하거나, 다양한 테스트 미실시
- ② 장비 작동 불능, 통신회선 단절 등의 문제가 있거나, 사전 예측한 수요 대비 처리 용량 부족
- ③ 방화벽 등 시스템 변경 작업시 실수로 정책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부주의 발생

- 또한, 지난 4.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클라우드 기반 사무관리·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(SaaS) 관련 정보보호 의무* 준수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

* SaaS 망분리 예외 관련 정보보호 의무사항

- ① 침해사고대응기관(금융보안원)의 평가결과가 "충족"인 SaaS를 이용
- ② 접속 단말기(컴퓨터, 모바일단말 등)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등을 준수
- ③ 동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

3. 주요 당부사항

- 금융감독원은 AI전환 등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일수록 금융회사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IT내부통제 체계*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

* IT내부통제 체계(3단계)

- ① [1단계: IT조직] IT업무(프로그램, 전산원장 변경 등)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·이행
- ② [2단계: IT조직 내 자체감사인] IT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자체점검
- ③ [3단계: 감사조직의 IT감사인] IT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을 감사

- 하반기 금융회사 자율점검이 다수 예정된 만큼, CEO 등 경영진의 관심과 책임하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전사적 자율시정 체계를 갖추도록 당부

Ⅲ 향후 계획

-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다발 금융사에 대한 사고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, IT 기본통제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,
 - 자율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 개선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, 자율시정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유사사고 재발시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
- 아울러, 프로그램 변경관리, 성능관리 등 반복적으로 취약점이 확인되는 부문을 지속 점검하여 금융권의 IT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